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10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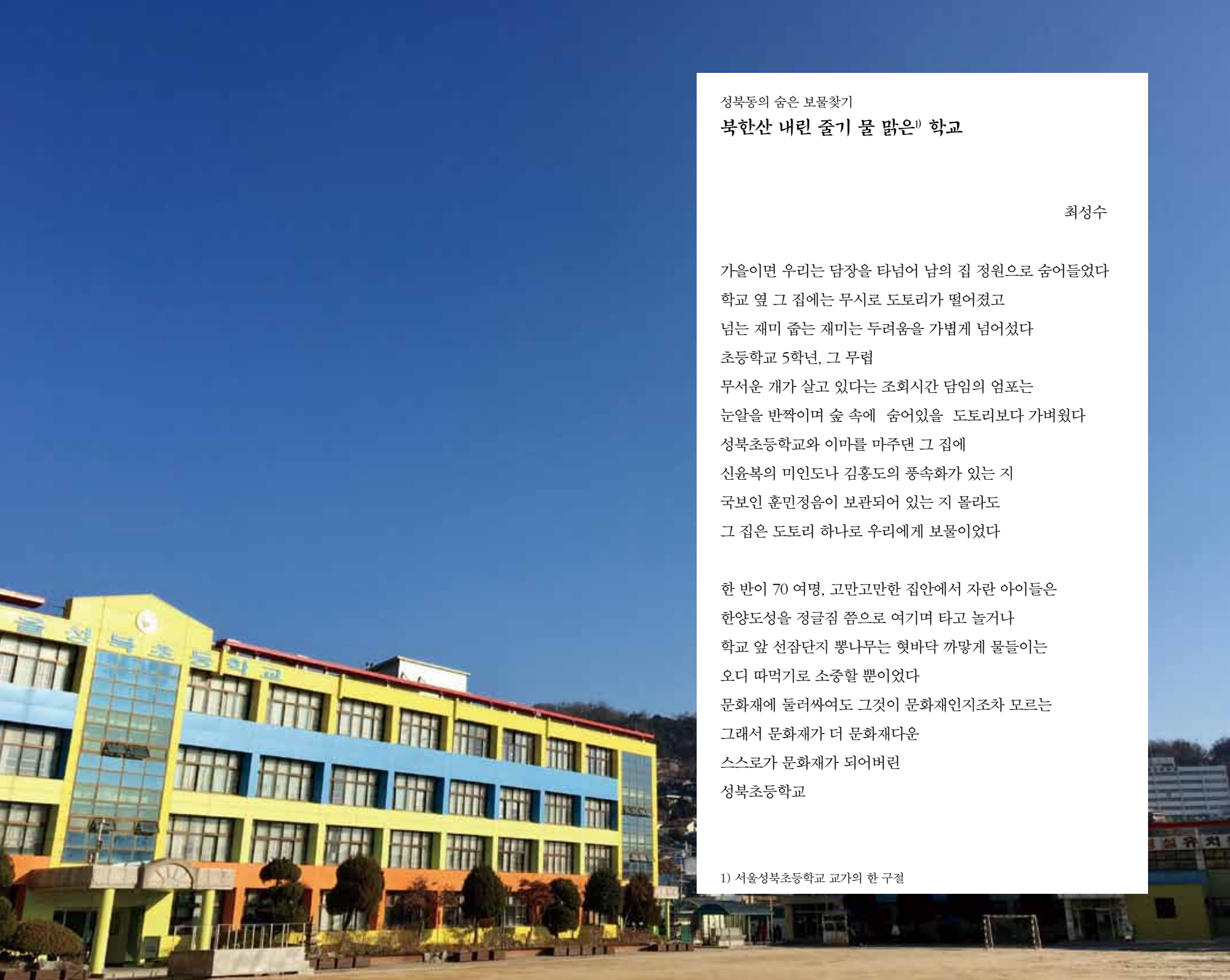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북한산 내린 줄기 물 맑은 학교**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 6p **성북동 개발계획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지역공동체 특집 × 성북동 대담 / 홍수만
- 14p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을 다녀와서**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박진하
- 36p **성북동 마전터에서 쌍다리까지**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 장영철
- 43p **지키고 싶은 흔적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 글·사진 장혜영
- 52p **성북, 예술의 길로**
우리 동네 아트살롱 / 김보라
- 56p **‘매화와 붓꽃’ 전시회에 다녀와서**
우리 동네 아트살롱 / 박진하
- 68p **자연을 기록한 몸, 몸을 기록한 그림**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이승훈

- 78p **정밀아 개인전 ‘그리기 쓰기 부르기’**
우리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 임승현
- 86p **손과 얼굴 기획전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문화공간 17717 한장 스케치
- 88p **성북동 한옥 찻집 마로다연**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법진스님
- 92p **신선한 과일이 가득한 성북동 과일카페 58.4**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주민 인터뷰 / 김현주, 오예주
- 100p **과일 대모험, 일상의 풍요를 만들다**
주민 기고 / 박범기
- 103p **11월 13일 : 故 배정학 활동가를 추모하며**
지역공동체 특집 × 주민 기고 / 글 황선영, 사진 홍수만
- 109p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편집 후기 / 김기민
- 112p **성북동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회원 모집 / 편집위원회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북한산 내린 줄기 물 맑은¹⁾ 학교

최성수

가을이면 우리는 담장을 타넘어 남의 집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학교 옆 그 집에는 무시로 도토리가 떨어졌고
넘는 재미 줍는 재미는 두려움을 가볍게 넘어섰다
초등학교 5학년, 그 무렵
무서운 개가 살고 있다는 조희시간 담임의 엄포는
눈알을 반짝이며 숲 속에 숨어있을 도토리보다 가벼웠다
성북초등학교와 이마를 마주댄 그 집에
신윤복의 미인도나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는 지
국보인 훈민정음이 보관되어 있는 지 몰라도
그 집은 도토리 하나로 우리에게 보물이었다

한 반이 70 여명, 고만고만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양도성을 정글짐 썸으로 여기며 타고 놀거나
학교 앞 선잠단지 뽕나무는 햇바닥 까맣게 물들이는
오디 따먹기로 소중할 뿐이었다
문화재에 둘러싸여도 그것이 문화재인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문화재가 더 문화재다운
스스로가 문화재가 되어버린
성북초등학교

1) 서울성북초등학교 교가의 한 구절

공부는 못해도 노는 것은 서울 최고였던 우리들 어린 날의 고향
내 아이 둘도 함께 동문인 세습 학교
누구의 학교가 아닌 모두의 학교
이제는 아이들 줄고 겨우 두 세 반,
서울에서 가장 작은, 작아서 더 행복하고 커다란
기억 속에서 가을 햇볕처럼 아슴아슴 흐려지는
그리운 옛 우리 모교
서울성북초등학교

—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오늘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
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년을 살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안
흥 보리소골로 귀향하여 고향과 성북동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
히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본지의
편집위원이자 성북동천의 고문이기도 하다.



성북동 개발계획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홍수만

재밋고 유쾌한 마을살이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인 ‘성북마을살이 연구회’는 지역 주민을 만나 마을살이, 지역 활동 혹은 당면 현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성북동 지역개발 검토 워크숍에 참석했었던 성북동 주민 김소연 님을 인터뷰어로 섭외하여 지난 10월 14일 동네 카페 디터틀에서 진행하였고,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인터뷰를 마을잡지 10호에 실습니다. [편집위원회]

홍수만 (이하 ‘홍’) : 우선 이 글을 읽으시게 될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이하 ‘김’) : 안녕하세요. 성북동에 7년째 거주 중인 김소연 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북동과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다 꽤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한가롭게 학교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새 집을 구할 당시 직장이 대학로였는데, 시골로 가자니 직장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을 찾게 되었고, 성북동이 그나마 조건에 맞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홍 : 성북동으로 이사 오신 계기 중에 아이의 한가로운 학교 생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수도 있겠네요?

김 : 일단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성북동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중학교부터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인근의 중학교에 사학비리 문제가 있어 아이를 보내기가 꺼려스럽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 선택은 아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홍 : 7년 동안 성북동에 거주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김 : 어느덧 7년을 살았는데 처음과는 달리 성북동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당장에만 보더라도 문화 행사가 엄청 늘어났고,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조사나 서명 운동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선은 동네가 재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느낌도 들었고요. 일단 주어지는 정보가 많지 않다보니 이런 변화들이 동네에서 나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홍 : 그러면 최근에 동네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 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주신다면?

김 : 성북동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동네에 살고 계신 다른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8월에 ‘성북동 개발계획 검토 워크숍’이란 행사에 참석

했는데, 그때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성북동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성북초등학교 주차장 계획에 가장 관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문제이죠. 단순 공사라면 공사 기간만 참으면 되는데 주차장이 생기면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문제로 인한 주차장 계획 반대 설문조사도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홍 : 성북동 개발계획 검토 워크숍¹⁾에 참석하신 동기 가운데 성북초등학교 주차장 계획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김 :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성북동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주관했던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고, 직장을 다니는 제 입장에서 참여하기 힘든 시간대에 진행이 되어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하다못해 주민센터에 공청회에 관한 안내 홍보물이라도 놓아두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북동 개발계획 검토 워크숍 홍보물을 보았고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하여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문서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 수립한 계획을 통해서도 종합적이라기보다는 파편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름 문화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성북동 주민모임 성북동천이 주최하고 성북마을살이연구회, 건축그룹[tam], 지음(知音)건축도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던 행사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여 성북동 전반에 걸쳐 입안된 개발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토론했던 공론장

홍 : 언제쯤 성북동 개발계획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 올해 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성북초등학교 주차장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전혀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천명하지만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커다란 위협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초등학교에 건설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더불어 주차장이 생기면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적인 부분도 악화될 것이고, 성북동 관광 명소 만들기랑 연결하면 결국 주차장은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을 위한 주차장이 될 텐데, 이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학교의 규모가 작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주차장을 짓겠다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서명 운동에도 동참하였습니다.

홍 : 결국 행정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 또는 담당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부터 교육, 문화, 경제적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적인 공청회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계획이 나오면 연차별 또는 분기별로 홍보 및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상시적



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으면 해요.

홍 :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 우선은 지역의 정보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부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는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 살고자 한다면 사는 곳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동천, 성북동 마을계획단 등등을 알게 되었고, 이번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물론 알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홍 : 혹시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 성북동에 있는 나무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요. 쾌적하고 한가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외지인들이 성북동을 찾을 때도 그런 성북동만의 쾌적함과 한가로움을 즐기실 수 있다면 좋겠고요. 굳이 다른 지역들처럼 관광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지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깎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 부분도 성북동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장인의 거리와 같은 것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요?

홍 :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 : 우리 삶이 각박해지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살았으면 해요. 거창한 것보다는 소박하게 만나 이야기 나누고 살았으면 합니다.

홍 :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저도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주민 인터뷰 프로젝트 “성북마을살이연구회가 만난 주민들”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웹진,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

-

홍수만은 돈암동에 살면서 월곡동 삼태기마을 상임활동가이고 정릉2동의 사위이며 성북동 동네공간에 터를 둔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이다. 유쾌하고 재미난 마을살이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성북구 안팎 곳곳을 종횡무진함 밥맛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성북마을살이연구회 | 선잠로 12-6, 1층 건축그룹[tam]

maeul.research@gmail.com | sb-maeulresearch.tistory.com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을 다녀와서

박진하

포트리스(fortress)가 아니라 시티월(city wall)인 한양도성

성북동은 한양도성과 함께 태어나 그와 더불어 숨 쉬며 살아왔다. 아니, 서울 전체가 한양 도성의 축성으로 가능해졌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성북이란 동명도 한양도성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의미이니 그 이름부터 한양도성에게 빚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답사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서울편2)’라는 책을 근거로 하고, 그 속에 기술된 여러 일정을 쫓아가려고 했다. 이전에도 남도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그 속에 기술된 여러 문화재를 직접 찾아보았던 재미있

는 답사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옛 추억을 살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정한 다음 온라인상으로 서적을 구입하고 그 책이 오기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책이 도착한 뒤에는 짬을 내기 어려웠다.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한식당, ‘디미방’이 성북동에서 동소문동으로 옮겨 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평소 좋아하는, 새로 구입한 책에서 뿔어져 나오는 인쇄 냄새가 거의 사라질 무렵이 되어서야 한양도성 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드디어 식당의 정기 휴일인 토요일에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북대문~동소문) 답사를 시작한다. 전날 늦게까지 읽은 정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번 답사 경로는 아침 운동 코스이기도 했으니 거의 매일 같이 다니던 그 길이다. 하지만 답사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저 운동을 목적으로 뛰거나 걷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아침 일찍 집에서 큰 길로 나와 건노라니 성북로 대표보행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 차량과 온통 땅을 뒤집어 헤쳐 논 지면을 피해 미로를 헤쳐 나가듯 성북동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간송미술관이 위치한 삼거리에 이르러 좌측편을 바라보니 한양도성이 보인다. 도시 건물 위로 불쑥 솟아난 한양도성은 이무기가 청룡이 되어 승천하기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있다가 도성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린다. 유엔 빌리지를 지나 홍련사 가까이 다가갈 무렵 ‘숙정문 안내소 가는 길’이란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그런데 영문 표기를 보니 시티 월(city wall)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본 답사기에서 저자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한양도성이란 본격적으로 방어용으로 축성된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과

같은 것이지, 한양도성은 심리적으로 한양 도성 인들을 보호하고 수도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란 것이다. 그럴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남한산성과 같은 산성은 마운틴 포트리스(mountain fortress)라는 단어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어떻게 표기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니 'the great wall'이었다.

동대문이 웅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단지 형세가 낮은 동쪽을 비보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방호용으로 구축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단순히 비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흙을 쌓아 둔덕을 만들거나 돌무더기나 수풀을 조성해서 땅의 약점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웅성을 만들어 지기를 보충한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말해 서쪽에 비해 산세가 약한 동쪽을 비보하기 위한 일이라면 땅의 지면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지 웅성을 만들어 비보를 한다 함은 다소 어색하다. 지세가 낮아 외부에서 침투하기 쉬우니 철저히 방호하려는 목적으로 웅성으로 만들었다 함이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을까?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했다가 한양도성이 텅 빈 것을 정찰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의 웅성을 보고는 무슨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주춤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웅성(甕城)은 성문 앞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모양이 마치 항아리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웅성은 성문을 공격하거나 부수는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웅성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군 쪽에서 공격하기가 쉽다. 이렇게 조성된 웅성이 동대문이었다. 왜놈 입장에도 보아도 동대문은 훌륭한 방호용 웅성이었던 것이다. 앞선 일화는 이런 좋은 방호기지를 포기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세력들의 변명은 아니었을까?

한양도성을 방호용으로 중시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는 역사 기록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동에 인가들이 생기고 마

음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 도성의 방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수도방어사령부 격인 어영청의 북둔이 위치한 곳이 성북동이었다. 도성을 방어하는 어영청 소속 군인들을 늘 이곳에 상주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물론 주변 산림이 무단 채취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을 근간으로 살던 군인들이 비상시 신속하게 도성을 중심으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으리라.

결론적으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처럼 전문적으로 방호를 위해 구축된 포트리스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전적으로 풍수상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비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거나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건설되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을 수도로 결정하는 데 있어 풍수적인 측면이 가장 중시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한양도성이 비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성곽이라 명명한 만큼 방호적인 측면도 작용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처음 한양도성을 쌓을 당시만 해도 국내외적으로 방위 문제가 없었으므로 방호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위치한 지형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성벽

삼청각 입구를 지나 안내소로 향하니 오른쪽에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 조림'이라 각자가 새겨진 바위가 놓여있다. 보통은 대통령이 식재한 나무 앞에만 이런 안내판을 세우지만,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그냥 조림이라는 표현과 함께 소나무 일군이 보인다. 그로 보아 당시 같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무를 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표지석을 세운 모양이다.



肅靖門





숙정문 안내서에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출하고 받은 방문 표찰을 목에 걸고 나면 비로소 자유롭게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안내소에서 숙정문까지의 탐방로는 목재 계단으로 되어있다. 첫 계단을 오르려고 할 쯤 맞은편에서 젊은 청년이 뛰어 내려온다. 지금 숙정문 기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서두르고 있다 한다. 묻지도 않았는데도 친절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대략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도중에 건축 자재가 있어 불편할 수 있으니 조심 하라는 안내도 잊지 않는다.

숙정문은 한양도성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북대문이라 지칭할 수 있다. 당초는 이보다 다소 서쪽에 있다가 1504년에 지금의 장소로 옮겨 왔다 한다. 이 북문의 이름, ‘숙정(肅靖)’은 말 그대로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전에는 숙청(肅淸)문이라 하기도 했단다. 그리고 누각도 없이 둥그런 아치, 홍예를 튼 성문만 있던 것을 1976년에 누각을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씨체로 현판을 만들어 부착했단다. 그러니 숙정문에서 누각이니 하는 것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하기는 좀 어렵다.

성문의 관문은 첩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 굳센 첩문을 붙여 잡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암톨쩌귀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무척이나 수려하다.

이 성곽문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출입이 금지된 북대문이다. 태종 13년에 ‘창의문과 숙정문은 경복궁의 양팔과 같아서 길을 만들어 지맥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풍수설에 입각하여 문을 굳게 닫고 소나무를 심어 통행이 어렵도록 했다.

하지만 이 북대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니 가뭄이 극심할 때이다. 음양 오행이론에 의하면 북방은 물을 의미하는 수(水)의 자리였고 숙정

문 뒤 골짜기가 깊어 음습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을 의미하는 화(火)의 자리에 위치한 남대문은 닫고 물을 뜻하는 숙정문을 열어 수기(水氣)가 서울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음기가 가득한 이 숙정문을 열어두면 한양 여자들이 음란해지므로 항상 문을 닫아 두었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풍속을 소개하는 동국세시기에는 ‘정월 대보름 전에 민가의 부녀자들을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게 하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할 수 있다’는 속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성 주위를 머리에 돌을 이고 세 바퀴 도는 우리 전래의 풍속과 닮아있다.

이러한 북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수도 방어라는 명분으로 다시 출입금지 구역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앞서 보았던 개방 기념 조림을 하던 2007년 4월 5일에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 것이다. 숙정문을 지나 성 안쪽으로 들어서면 당시 기념식에서 낭독되었다는 ‘북악산 개방에 부쳐’라는 부제가 붙은 북악산 개방기념 축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시의 앞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도 도쿄에도 베이징에도 베를린,
모스크바에도 없는 山
단 하루도 산을 못 보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산이 목숨이요 산이 종교인 나라에
...』

보통은 여기에서 북악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하나 우리 마을, 즉 성북동에 위치한 한양도성을 살펴보려면 반대로 내려가야 한다. 본격적인 성벽 답사에 앞서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나 기타 식물군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오랜 세월, 출입금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까닭에 보다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

니 팔배 나무니 단풍나무니 하는 나무 이름 표지판이 보인다. 팔배 나무 표지판엔 ‘5월에는 배꽃을 닮은 새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가을에는 그 자리에 수천수만 개의 팔알 크기 열매가 달립니다’ 하는 안내문이 있으나 아직은 그 열매가 설익어 푸르기만 하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성벽여행이 시작된다. 성 안에서 보면 정사각형의 총안(銃眼)만 보인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이 그러하듯이 바깥 쪽 성벽은 높고 안쪽은 사람 키만큼 되어 있다. 3개의 정사각형 총안이 모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데 이를 1타(堞)라고 한다. 안에서 보면 3개의 총안이 정사각형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 양 측면에 있는 총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단면이 수평이지만 가운데 있는 총안은 밑에 있는 단면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성 밖에서 보면 보다 뚜렷하다. 양쪽에 있는 원거리 사격을 위해 만든 원 총안(遠 銃眼)은 밖에 볼 때도 정사각형이나 중앙에 위치한 근 총안(近 銃眼)은 세로로 길게 늘어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성벽이란 것이 거의 같은 구조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처럼 기능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가 설치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시작부터가 가파르다. 우리 성곽이란 것이 대체로 산에 기대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벽은 그 지형에 따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성벽도 지형 위에 그 경사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의 단위에 속한 성벽도 경사에 따라 그 높이가 다르다. 성벽은 돌 축대 위에 총안을 새기고 그 위에 맞배지붕 형식으로 덮개 석을 만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순수 우리말로 성가퀴라 하는데 모두 3개의 총안이 모여 한 단위를 이룬다.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서는 근 총안과 원 총안의 높이가 달라진다. 평지에서는 하나의 단위인 1타 위의 덮개석이 하나이다. 이런 성가퀴의 지붕은 각이 넓은 이등변 형태

를 양 측면에 둔 갈쭉한 육각형이다. 그런데 가파른 장소에서는 각 총안마다 다른 높이의 지붕을 가지게 되지만, 중간에 잘린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수직으로 곧게 자른 단면이다. 이런 식으로 성벽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즉 산세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산세가 올라가면 성벽도 따라서 올라가고 지형이 내려가면 성벽도 여기에 순응하여 내려간다. 이제 성벽 밑에 있는 성 둘은 땅속에 묻혀 오래된 나무처럼 대지에 뿌리를 두고 그들과 하나가 된 듯하다. 이것이 한국인의 마음이고 한국의 성곽인 것이다.

또 산세가 안으로 굽으면 성벽도 안으로 굽어 들어가고 밖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 나가면 성곽도 같이 돌아서 나간다. 이를 가리켜 곡장(曲牆)이라 한다. 성벽의 특성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지나고 보니 싸리나무 꽃이 예쁘게 피어있다. 말 바위 안내소에서 방문 표찰을 반납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전망대가 나타난다.

이 전망대를 기점으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성벽 위로 설치된 가교는 전망대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성북동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기에 그러하다. 이제 성 밖의 성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벽의 크기는 한창 커져 있었고 그 웅장함도 한결 더해진다. 성벽 안쪽에서는 돌 축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총안이 있는 성가퀴만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성 밖에서 보면 돌 축대가 훨씬 높게 축성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 옆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 위에 놓인 성벽도 만나게 된다.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 그를 피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를 기반으로 삼아 위에 축성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오랜 세월을 버티어 낸 성벽들을 볼 수 있다.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건널 수 없는 성벽들은 배불림 현상을 보이며 언젠가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곳곳에 계측기를 설치해 둔 것



으로 보아 치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옛날 조성된 성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즉 시대별로 축성방식이나 성 돌을 다듬는 방법이 다른 성벽들을 만나게 된다. 조선 초 태조 때에는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하단부에는 큰 돌을,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아 조성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만들어 갔다. 이어 세종 때에는 무너진 도성을 다시 쌓을 때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했다 한다. 이보다 좀 더 세월이 지나 병자호란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이후에는 일정한 규격에 맞게 다듬어서 보다 정교하게 축성했다.

성벽에 따라 그 축성 시기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보수 과정에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성 돌이나 남겨진 성벽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탈진 지역에서는 성 돌 가장자리에 요철을 만들어 톱니바퀴가 맞물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밑으로의 쓸림을 방지하고 있었다. 또 크게 반원을 그리며 밖으로 돌아나갔다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곡장의 아름다움도 여기에서 절정을 이룬다. 검고 푸른 이끼가 세월의 두께만큼 성벽에 머물러 있다.

와룡 공원을 밖으로 두고 안쪽으로 좀 더 걸어가게 되면 계단을 만나게 된다. 성벽도 계단을 따라 급하게 물결치며 내려가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성곽을 가리켜 또 다른 아름다운 설치 미술 작품이라 말한 까닭을 알게 해 준다.

노동으로 지친 도시민의 쉼터가 된 한양도성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평상시 성 밖에서 안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암문이 나타난다. 별다른 장식도 없이 지극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이 사각형 석문을 기점으로 성안 쪽의 산책로는 끊기고 만다. 성벽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인가의 담벽이 되기도 하고 후원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북정동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 들어와 판잣집을 짓

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0년대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촌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성벽 주위에 또 다른 판잣집들이 고단한 몸을 성벽에 기대어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한양도성은 방호나 풍수 상 비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무를 다하고 그의 허리를 가난하고 힘든 노동으로 지친 도시민에게 내어 주어 쉼터가 되고 그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성북동에 사셨던 제4대 국립 중앙 박물관장님의 회고를 들어 본다.

《벌써 20여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박물관에 수위자리가 비어 있어서 공채시험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 1등으로 합격해서 채용된 젊은 청년이 있었다. 이 젊은이가 그 후 20년 가까이 박물관 식구 노릇을 하는 동안 충직한 수위로서 남긴 이야깃거리가 한둘이 아니지만, 집이 없어서 성북동 산마루에 어설픈 판잣집을 지었다가 뜯기고 뜯길 때마다 노숙을 해야 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박물관 근무를 거른 일은 없었다. 어느 해인가 장마철에 집이 뜯긴 정상이 하도 딱해서 발굴 때 끌고 다니는 작고 허술한 천막 하나를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장마가 갠 후에 돌려주러 온 천막 꼴을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다.》

이처럼 한양 도성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성 밖으로의 산책로, 즉 성북동내에서의 도성답사는 여기에서 끊긴다. 암문을 통해 명륜동, 즉 성 안쪽으로 들어가 다시 큰 길을 따라 내려간다. 성 안 쪽에서는 역시 돌 축대는 보이지 않고 성가퀴만 보인다. 가파른 경사로에서는 성벽도 바빠 내려가지만 평지에 이르러서는 성벽 위에 있는 맞배지붕 형식의 덮개석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사이 좋게 서 있다. 자세히 보면 평지처럼 보이거나 약간 오른 지형에 따라 성벽도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그마한 파격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다시 성벽은 급한 경사계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서울과학고등학교 후문에 위치한 대로를 만나면서 실종되고 만다.

이 도로는 성북동과 혜화동을 이어주는 도로로, 이전에는 성북동 사람들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이용했던 길이다. 큰 대로를 지나 경신고등학교 담벼락에 이르면 성벽은 학교의 담장이 되어 버린다.

그 즈음에 ‘강릉’이라고 새겨진 각자석이 있다는 자료를 본 사실이 있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찾아보려 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처음 성벽을 조성하던 태조 때에는 전 도성을 97개 공사구역으로 나누고 천자문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구역 명을 정해 표기했다. 예를 들면 천자문의 첫 번째 자인 하늘 천(天)자를 이용하여 북악 정상 시작점에서는 천자 시면(始面)이라 표기하고 끝나는 지점에는 천자 종면(終面)이라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던 것이 세종 때는 그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 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공사는 특정 구역에 부실이 있어 성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동원되어 그 성벽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다. 성축 공사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도 책임져야 할 지역을 표기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명제이었다. 그 당시 경신 고등학교 담장이 된 성벽의 공사를 담당한 고을이 강릉이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이 담당했던 성벽이 망가졌으니 강릉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수리하라 해야 하겠다. 하지만 이젠 그 표지석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그리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다만 담장 옆으로 예쁜 화초를 심어 오가는 사람을 반기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누군가는 이 공지를 활용하여 채소를 심었나 보다. 성곽과 축대 보호를 위해 빈 공터에 채소 등을 가꾸지 말라는 말뚝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그런 사실을 추정케 만든다. 빨간 맨드라미도 보이고 보라색 나팔꽃도 있다. 노란 담황색 꽃은 너무나 화려해 보인다. 이런 작은 정원은

성북동 마을계획단의 작품이다. 조금 더 나아가니 주택가 쪽에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담벼락 옆에 판자 두 개 높이로 경계를 만들고 그 사이 공간에 화초를 심었다. 너무나 예뻐서 그 꽃들의 이름을 확인해보았더니 국화과에 속하는 것들로 천수국, 금잔화 또는 백일홍 등이라고 한다. 성곽이 사라져 아쉬움이 남는 자리에 이런 예쁜 꽃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고운 마음에 감사드린다.

여기서부터는 성벽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린다. 한양도성은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해체되고 사라져 버렸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망가진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혹독한 가난과 노동에 지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6·25 동란 때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가곡, 명태가 생각난다.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소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짜악 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이를 슬쩍 개사를 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드넓은 한양, 서울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파수 군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며 때론 그들과 함께 춤추며 노닐다가
 어떤 외롭고 가난한 노동자가
 밤늦게 일을 하다가 깊은 잠을 잘 때
 그의 따뜻한 온돌이 되어도 좋다.
 그의 울타리가 되어도 좋다.
 찌악 찌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한양도성’이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사라진 성벽은 동소문 가까이 가서야 다시 나타난다. 어느 성벽은 개인 주택의 담장으로 활용되고 일부는 허물어져 온돌방의 구들장으로 쓰이기도 했겠지만 그 증거를 성북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옛 성벽이 집단 가옥의 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옛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서울시장 공관에 다다른다. 지금은 한양도성 안내소 및 전시관이 되었지만 이것은 1941년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일본식 2층 목조건물이다.

흰색 벽이 목재 건물과 잘 어울린다. 개방식 유리창이 많고 수직과 수평선으로 건물을 분할하고 있는 단순함이 건물을 더욱 단아해 보이게 한다. 1층으로 들어가니 밖으로는 커다란 유리 창문들이, 그 안쪽으로는 일본식 격자무늬 방문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안쪽 방문도 활짝 열어두어 밖의 조경을 방 안까지 끌어들었다. 일본식 잔디 밭 너머로 서울 성벽이 보인다. 우리의 한양도성이 개인 주택의 울타리가 되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장식품이 되었다. 2층은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건물이다. 천정은 대들보가 드러나고 서까래가 씨줄과 날줄로 잘 짜여있

어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그 위로 지붕 판목도 보인다.

우리의 중요 문화재인 한양도성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 건물이 주는 편안함도 같이 느껴진다. 이것도 우리의 역사이다. 아픔도 역사이고 이 건물 역시 그러한 역사의 산물이다.

드디어 동소문에 도착했다. 당초 홍화문(弘化門)이었던 것이 창경궁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름을 헌납하고 혜화문(惠化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문은 한양 북쪽으로 가는 중요 관문이었다. 북문인 숙정문이 폐쇄되어 있던 관계로 북으로 가려면 이 문을 이용하여 돌아가야 했기에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문이라는 의미에서 동소문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누각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다. 겸재 선생이 그리신 동소문 그림을 보면 둥근 아치 형태로 홍예 틈 석문만 있을 뿐이다. 그 위치도 바뀌어 옆에 있는 큰 도로인 동소문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전차를 만들기 위해 해체시키면서 여기에서 나온 목재는 개인에게 매각했다. 그렇게 우리의 동소문은 사라진 것이다.

지금의 혜화문은 1992년 다시 복원한 것으로 천정에는 봉황을 그려 두었는데 성북동을 비롯해 주변 지역이 새들에 의한 농사 피해가 심한 까닭에 이를 제지하기 위함이었다. 圖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성북동 마전터에서 쌍다리까지

장영철

최순우옛집 - 마전터 - 성북동 쉼터 - 성북로 21길 골목 - 성북구립미술관

지난 9월 24일 일요일, 어느덧 네 번째 성북동 골목기행은 정해진 탐방코스 없이 무작정 성북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던 건 구름 낀 회색빛의 하늘과 흐린 날씨 탓도 있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탐방의 부담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어찌하다 보니 지난 탐방의 마무리 구간인 최순우옛집을 시작점으로 삼게 되었다.

최순우옛집, 시민문화유산 1호이며, 한국 “미(美)”의 발견에 평생을 바치신 고(故) 최순우 선생의 옛집이기도 한 이곳을 시작으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최순우옛집을 시작으로 삼은 건 이곳이 지닌 성북동의 멋과 여유로움을 감상하기 위함도 있지만, 시민문화유산으로 급변하는 성북동의 변화 속에서도 홀로 옛 정취와 감성을 붙잡아 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최순우옛집은 닫혀 있었다. 방문한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이 휴관일이었다. 준비 없이 출발한 이번 골목탐방은 이렇게 민망하게 시작되었다.

1930년대 당시 유행하던 도시한옥 풍으로 지어진 최순우옛집은 그가 197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거주한 곳으로 1933년 건축된 심우장과 동시대에 지어진 한옥이다. 특히 이 집의 주인 해곡 최순우 선생은 개인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과 만해 한용운 선사와 더불어 지금의 성북동이 갖춘 멋과 기품을 불어 넣은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과 해곡 최순우 선생의 인연은 각별한데, 간송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가문의 전 재산을 바쳐 우리문화유산을 지켜낸 대 수장가로 이름을 알렸다면, 해곡 최순우 선생은 한국미의 순례자로 <한국미술 5000년>展을 통해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린, 한국 박물관 역사의 전설이기도 하다.

또한 간송의 제자이기도 했던 해곡은 한국전쟁 당시 북송될 뻔한 보화각(現 간송미술관)의 수장품을 지켜내며 전형필 선생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는데, 간송은 아들의 돌림자 “우(雨)”와 그의 고향에서 따온 “순”자를 붙여 “순우”라는 이름과 “해곡”이란 호까지 지어주게 된다.

조선말 도성 밖의 평범한 마을이었던 과거의 성북동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지켜낸 전형필 선생의 간송미술관과



최순우 옛집

최순우 옛집

독립운동을 통해 정신을 꺾지 않은 만해 선사의 심우장을 통해 멋과 기품을 갖춘 지금의 성북동으로 다시 탄생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근현대의 예술가와 지성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최순우옛집의 속살을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골목길을 마저 걸으며 새삼 성북동의 변화를 실감한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말끔한 신축 건물과 외관을 단장하고 들어선 세련된 카페, 현대적인 분위기의 개인 사무실들 그리고 사라진 집터를 대신해서 들어선 공영주차장까지, 최순우옛집에서 마전터로 향하는 옛 기억 속 골목길의 정취는 매일 매일 지워지고 새롭게 기록됨의 반복 속에 있었다.

사라져 버린 낡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이 골목길에는 붉은 벽돌과 큼직한 석축으로 쌓인 돌담길 위로 한옥 기와지붕의 처마만을 내어주는 수줍은 풍경이 남아 있고, 새롭게 조성된 공영주차장부터 단정하게 포장된 아스팔트와 석축 사이의 틈을 비집고 웅케 건강하게 자라난 ‘천사의 나팔’도 볼 수 있다.

마전터를 향하는 골목 안쪽의 낡은 집들이 새로 지어지고 리모델링되면서 골목의 풍경은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정돈되고 밝아졌으며, 아스팔트 틈 속을 비집고 올라온 한 뿌리 생명에게도 매일 정성껏 물을 나누어 주는 동네 어르신의 손길도 느낄 수 있다. 내 기억 속에서 힘을 잃어가던 어두운 뒷골목 풍경이 잠시 못 본 사이에 꽤나 젊어진 모습이다.

골목의 끝자락에 다다라 계단 위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선택해 올라서면 종로와 성북동을 이어주는 혜화로를 만나게 되고, 그 건너편으로는 성북동 쉽터가 위치한다. 최순우옛집과 마전터 뒷골목이 현재 성북동에서 변화의 한복판에 들어선 곳이라면, 성북동 쉽터를 지나 성북로 21길을 통해 가보는 오래된 골목길은 급변하는 성북동 속 여전히 변함 없는 모습으로 탐방객을 맞이하는 골목이기도 하다.

성북동 쉽터 공원에서 한숨 돌리고 빠져나와 주택 사이로 난 골목을 향해 걸어본다. 세탁소 크린피아와 레스토랑 두에코제 사이로 난 가파른 골목길을 택하여 오르면, 처음 접하게 되는 성곽 아래 가파른 골목에 경사와 성곽을 이용한 독특한 형태의 주택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기본 외형은 유지하고 수성 페인트와 목재를 이용하여 꾸민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실과 마름모꼴 석축 위로 삐죽삐죽 모난 적벽돌이 불규칙적으로 돌출되게 지어진 오래된 벽돌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막다른 골목을 예상했지만 신기하게도 발길은 끊기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었다. 높은 골목길을 따라 아랫집의 지붕을 허리에 끼고 윗집의 담장을 힐끗 넘겨보며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을 빠져 내려오면 북정마을의 초입에 당도한다. 우리는 성북동 주도로인 성북로를 따라 성북구립미술관으로 향했다. 마침 기획전인〈1933, 3개의 집〉展이 열리고 있었다.

골목탐방을 마치며 간송과 혜곡 선생의 일화를 더듬어가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다. 성북동의 익숙한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 그렇다. 벌써 몇 년째 간송미술관의 봄/가을 전시가 성북동에서 사라졌다. 간송미술관은 현재 휴관중이라고 한다. 몇 해 전부터 간송의 수장품을 보존할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서 빨리 새로운 보화각이 들어서고 간송의 정신과 보물들이 성북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간송이 없는 성북동은 가을바람만큼이나 외롭고 허전하다. 

-
장영철은 성북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직장인으로, 본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 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들과 정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곽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 오르막길, 구석진 모퉁이길, 가파른 계단 아래. 위치는 다르지만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색이 바라고 드문드문 칠이 벗겨진, 하나 둘 간판 글자가 떨어질 만큼 오래도록 버틴 동네 가게들.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 생활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은 언제나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열린 문 사이로 인사하는 익숙한 얼굴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조용한 힘이 된다.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간송미술관, 최순우옛집, 서울 성곽 등 곳곳에 문화유산이 가득한 성북동.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북동은 이미 보물 같은 동네다. 보통은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길상사로, 심우장으로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기 마련이지만 천천히 동네를 거닐어보는 것을 더 추천한다. 성북동 골목은 그저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 말이다.

먼저는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반도이발관'을 소개한다. 성북로 대로변에서 들어간 골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곳은 35년 동안 주민들의 머리를 단장해온 곳이다. 지극히 눈을 감고 이발을 받는 손님에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할머니까지, 반도이발관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발소

안 소파는 주민들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동네 마루 같았다. 반도이발관 김석근 사장님께 이발 철칙을 여쭙보니 ‘손님의 취향에 맞게’라고 답하신다.

“손님이 좋아해야죠. 이발하고 기분이 좋아서 흐뭇해하며 가실 때 가장 기뻐요.”

그리고 덧붙여 이제는 손님의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야할지 떠오른다고, 오래된 사이인 만큼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고 하신다.

반도이발관 옆에는 ‘백옥크리닝’ 세탁소가 있다. 흰 백(白)에 구슬 옥(玉)자를 써서, 백옥처럼 깨끗하게 세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이곳은 4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겨울옷들 다 가지고 왔어요’ 하며 품 안 가득 옷을 들고 와 그저 맡기고 떠난다. 가격을 물어보지도 굳이 ‘깨끗하게 해 주세요’, ‘비싼 옷이에요’ 말하지도 않는다. 사장님은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옷에 이름표를 달고, 찾아가지 않은 옷이 있다며 알려주신다.

“서로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해. 동네 장사는 간판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오시는 거지.”

백옥크리닝 홍기문 사장님은 믿음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믿고 맡기는 단골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세탁한 옷을 보답처럼 건네셨다.

작고 낡은 풍경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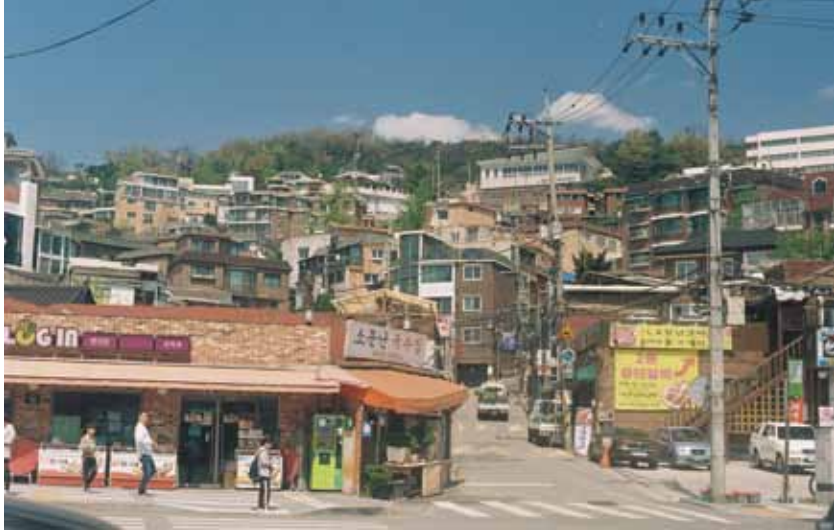
성북동에는 ‘가게안내지도’가 있을 만큼 특색 있고 유서 깊은 가게들이 많다. 성북로55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 어르신이 운



영하는 ‘새이용원’, 성북로8길 8에 자리한 43년 된 ‘옛날 중국집’ 등 낮고 아담한 동네 가게들은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즌 세일’, ‘히트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마트 입구와 달리 ‘마음이 부자인 집’이라고 써 놓은 ‘해동꽃농원’ 대문이 눈길을 끈다.

동네 가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의자든 나무 마루든 꼭 주민들끼리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뒀다. 유리와 액자를 판매하는 ‘제일사’ 가게 앞에는 ‘힘든 사람 쉬어가세요’라고 적힌 의자가 놓여 있다. 이밖에도 식당 앞에서나 보았던 의자들이 동네 문구사 앞에, 세탁소 앞에 놓여 있어 가게에 볼 일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다.

동네 가게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게 앞을 크고 작은 식물들로 가꾼다는 것이다. 처음엔 예쁜 화분을 집 안에 두지 않고, 문 밖에 두는 것이 신기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에 가보면 실외 벽면은 그저 광고하는





쇼윈도로 쓰이고 식물 역시 손님들을 끄는 인테리어로 여겨진다. 그런데 동네 가게들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공동 구역을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준다.

같은 모양이 없는 집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굽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공터 풍경이다. 보통 비어있는 공간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경고문이 붙여져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북동 꼭대기 자락의 공터에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적힌 팻말이 있다.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게시판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현수막도 아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전할 수 있다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흔적이 아닐까 싶었다. 누가 두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메모가 붙여진 물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모자를 쓴 멋진 눈사람과 같은 그런, 이웃들의 흔적 말이다.

성북동의 매력적인 풍경은 밤이 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일정한 간격의 아파트 불빛과 달리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동네. 길이 그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래된 동네.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풍경이야말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유산이 아닐까. 

-
장혜영은 온몸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다. 삶으로 메시지를 쓰고 싶어 캠페인을 만들고 글을 쓴다. 마음에서부터 환경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에코 라이프 매거진 <green mind>를 창간했고, 장애를 만드는 건 사회적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성북동 골목길을 기억하고 싶어 2011년부터 필름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다.



김보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심지어 표석 하나도 없다. 그 곳의 역사적 가치를 아는 이들도 점점 사라져 간다. 그럼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예술가들의 숭고한 향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그 곳을 애써 보려고 한다. 시작은 그러하였다.

겸재 정선, 오원 장승업, 소정 변관식, 소전 손재형, 근원 김용준, 그리고 수화 김환기. 여섯 명의 예술가들은 성북 지역을 사랑하였고 이곳에서 삶과 예술을 꽃피웠으나 그 흔적은 결코 오랜 시간을 감내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이들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곳을 서성이며 먹먹한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겸재 정선은 수려한 자연을 찾아 화폭에 담아내며 진경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성북 지역에 거하지는 않았으나 이곳의 경치를 몇 작품 그렸다고 전해진다. 그 중 <동소문도>와 <북단송음>은 이번 전시와 도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옛 성북동 계곡을 바라보고 그렸다는 또 다른 작품은 여전히 찾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터전이 되는 암시로서 겸재가 품은 이 마을의 탁월한 자연에 의미를 둔다면 이번 전시의 서막으로 충분하다. 겸재가 걸었을 법한 삼선교 부근에 서면, 이미 수 세기가 지났음에도 의연함을 간직한 성북동 산세가 멀

리서 다가온다.

오원 장승업이 성북동에 살았다는 사실은 영운 김용진의 제안으로 장승업의 집터를 함께 찾아 갔다는 산정 서세옥 명예관장의 구술로 확인되며 석제 서병오, 위창 오세창, 영운 김용진, 춘곡 고희동 등이 오원과 친교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 집은 초가집으로 오원은 문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머물렀으며, 키가 훗칠하여 흙으로 된 방 벽을 밀면서 잠을 청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 장승업 집터에는 1995년 문화체육부에서 세운 표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표석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오래 전 버려졌고 지금은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오원은 말년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집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정 변관식은 현재 성신여대 부근에 ‘돈암산방’이라 불리는 한옥을 지어 살았으나 화실을 넓히고자 아리랑 고개에 양옥집을 지어 이사를 했고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개발의 성황 속에 ‘돈암산방’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 그곳에는 벽돌로 된 건물이 들어서 현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사진으로만 옛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소정이 타계한 아리랑 고개 양옥의 주인은 바뀌었으나 건물만큼은 옛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소전 손재형에 관해서는 2013년 성북구립미술관 봄 기획전전에서 그 삶과 예술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승설암도>를 소개한 바 있다. ‘승설암’은 백양당 서점을 경영하던 인곡 배정국의 집으로 소나무와 벽오동나무가 가득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며 수십만 권의 책이 담긴 서고가 있는 당대 예술인들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다고 하니 민족의 멋과 풍류를 집작할 수 있게 한다. 이 곳은 소전을 비롯하여 토선 함석태, 상허 이태

준, 수화 김환기, 심원 조중현, 근원 김용준, 구보 박태원 등이 모여 예술을 논하고 우리의 정신을 고취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승설암 터에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소전의 작품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없다.

성북구립미술관은 2012년 봄 기획전시에 ‘노시산방’과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근원과 수화의 성북동 시절 이야기를 담았다. 근원 김용준은 경성중앙고보 시절 당시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로 처음 이사하였고 결혼 직후 다시 성북동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이태준이 당호를 붙여준 ‘노시산방’이다. 근원은 동경미술학교 유학시절 오원 장승업의 그림을 보고 동양의 문화를 더 높게 생각하게 되어 글과 그림으로 그 가치를 피력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수화 김환기는 김향안과 결혼하여 신희 집을 구하던 중 근원이 살았던 ‘노시산방’을 물려받게 된다. 김환기 부부는 그 집을 ‘수향산방’이라 다시 이름 짓고 살았지만 가족들의 불편함 때문에 종로구 원서동의 양옥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내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머지않아 다시 성북동으로 오게 되고, 수화의 가족은 1960년대 김환기가 홍익대 미대 학장으로 취임할 무렵까지 이 집에서 살게 된다. 현재 ‘노시산방’은 성북동 274-1번지(성북로168) 수월암 부근이며 김환기의 두 번째 집은 성북동 32-1번지(선잠로56)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옛 번지와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검재가 그림을 그린 곳, 오원의 집터, 돈암산방, 승설암, 노시산방, 김환기의 두 번째 집터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개발이라는 꽤 근사한 가면에 가려져 그 본디 모습을 잃고 말았다.

여섯 명의 예술가들이 한국의 미술에 있어 그 정신과 예술의 가장 높

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작품과 업적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삶과 작업의 공간을 기억하는 것도 예술가와 분리시킬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개관 이후 성북동 미술문화 탐방을 지속하면서 장소를 통하여 성북의 예술가들에 대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옛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떠한 표식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과 복원·보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오원이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근원이 부인을 만나 사랑의 마음을 싹 틔운 길, 수화가 산골짜기를 지나 시내로 나가던 산책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한국의 예술가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술의 길로 깊어지는 정취 그 자체이며, 잃어버린 우리의 참 모습인 것이다.

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가. 우리의 현재를 보다 정체되고 순도 높은 미적 풍요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앞서간 예술가들과 함께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 위 글은 2014년 성북구립미술관 개관 5주년 전시 〈성북, 예술의 길로〉展 서문입니다.

-

김보라는 2009년 자치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세워진 공립 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관장이다.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 미술의 의미를 찾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근현대 미술의 메카로서 성북동을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작가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성북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문화 성북동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가이다.



우리 동네 아트살롱

‘매화와 붓꽃’ 전시회에 다녀와서

박진하

요즘 시간에 쫓긴다. 좀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울 만큼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매화와 붓꽃’이란 전시이다.

개인적인 모든 관심은 근원 김용준에게 쏠려 있었다. 한국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성북동에 거주했다는 작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근원 김용준 선생의 작품을 전시한다 했을 때만 해도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몇 점이나 모아 전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 있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전시회장에 들어선 순간 사라져 버렸다. 온통 근

원과 존 버거의 작품으로, 그것도 진품으로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들의 주인인 두 화가 중 한 사람 김용준은 동양, 한국에서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인 존 버거는 서양, 영국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직접 만났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류한 바도 없었다. 아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을지 모른다. 단지 두 사람 모두 화가로 출발했으나 그림보다도 글을 쓰는데 더 몰두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이 전시는 이러한 공통분모를 매개로 그들을 늦게나마 조우하게 만들었다.

입구에서 처음 보게 된 작품은 ‘반창춘색(半窓春色)’이라는 그림이다. 화폭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여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묵화 방식으로 매화를 그려내고 있다. 그림의 좌측을 차지하고 있는 붉게 피어난 매화꽃은 밝게 채색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의 꽃은 전통 수묵화 방식으로 먹과 흰 여백으로 채워져 있다. 작품명처럼 반창(半窓)이라는 것은 반쯤 연 창문을 말한 것일 게다. 창이 반쯤 열려진 편에서는 붉게 핀 매화가 총 천연색인 원색 그대로 보여졌겠으나, 한지로 가려진 편에서는 매화가 하얀 창문에 비치어 만들어진 검은 실루엣만 보여졌을 것이다.

이어 만나게 된 작품은 범부 김정설의 초상화이다. 검은 선글라스에 지팡이를 쥔 초상화의 주인공은 동양철학자이자 한학자이며 소설가 겸 시인인 김동리의 형으로, 한 때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시인 김지하가 ‘현대 한국 최고의 천재’라고 격찬했던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를 연구하는 ‘범부 연구회’가 생겨날 만큼 근대 사상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허나 그는 평범한 사람을 자처했다. 초상화 안에서의 범부는 비범하다기보다는 주위에서 흔히 만나 볼 수 있는 촌부처럼 보인다.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으나 단정해 보이지 않고 이마에 있는 두 개의 주름과 코 밑과 입술 아래의 수염도 곱게 가꾼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머리 아래 부분에서는 인물을 따라가는 붓 선도 과감해진다. 이리저





Small informational text label below the painting.



Small informational text label below the painting.



Small informational text label to the right of the scroll.

Small informational text label to the right of the scroll.



Small informational text label above the painting.



리 활개친 붓이 순식간에 그려낸 흔적이 가득하다. 대상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캐리커처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작품 두 점은 모두 수화 김환기 선생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 처음이 ‘수향산방 전경’이란 이름을 가진 그림이다. 그림 속에 그려진 이 산방은 당초 근원 선생의 소유였으나 수화 선생에게 팔아넘긴 집이다.

성북동에 있었던 이 집을 무척이나 좋아해 ‘노시산방’이란 당호로 불렀다. 노시(老柿)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집에 오래된 감나무가 두세 그루 있었던 까닭이다. 그 나무를 몹시 아꼈던 선생은 감나무를 중심에 두고 화초를 가꾸었고 ‘노시산방기’에서 이 감나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다.

“유독 내가 감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놈의 모습이 아무런 조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때문이다. 나무껍질이 부드럽고 원시적인 것도 한 특징이요, 잎이 원활하고 점잖은 것도 한 특징이며, 꽃이 초롱같이 예쁜 것이며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단풍이 구수하게 드는 것과 낙엽이 애상적으로 지는 것과 여름에는 그늘이 그에 덮을 나위 없고 겨울에는 까막까치로 하여금 시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화조(花朝)와 월석(月夕)에 감나무가 끼어서 풍류를 돋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어느 편으로 보아도 고풍스러워 운치 있는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가 제일일까 한다.”

그의 감나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는 경상도 선산에서 태어났으나 자라기는 충청도 영동에서 성장했다. 그곳은 감나무로 유명한 땅이다. 가로수도 감나무로 되어 있을 정도로 지천에 깔려 있는 나무가 감나무이다. 영동에서 나온 감이 너무 맛있어 조선시대의 진상품을 영동 산(産)으로 했을 정도이다. 그러니 감나무에서 근원 선생은 그의

고향, 영동을 본 것은 아닐까?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감나무를 키우고 글을 쓴 건 아닐까?

그의 노시산방을 수화가 차지하면서 수향산방(樹鄉山房)이 되었지만, 선생의 그 집에 대한 애정은 이 그림을 그리던 그 때까지도 여전하다. 늙은 감나무는 집 오른쪽에 딱하니 버티고 있고 선생이 애지중지하던 피석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있는 향로석도 그리하고 있다.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그려진 강아지는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중심에 펼쳐진 집채는 마치 추사의 세한도처럼 골격만 그려져 있다. 가는 선으로만 마감을 한 것이나, 세부 묘사를 포기하고 단 순화시킨 것을 보면 그러하다. 집 앞에 선 소화 김환기는 추워서 그런지 양 손을 포켓 깊숙이 꽂고 있다. 그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수화의 부인은 너무도 작은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전시회의 백미는 역시 ‘수화소노인 가부좌상’이다. 불과 30대 중반의 수화 김환기 선생을 소노인(少老人)이라 명명한 것부터 해학적이다. 가운데 가르마를 한 그림의 주인공은 전체 얼굴에 비해 비교적 큰 둥근 안경을 쓰고 있으나 코와 눈은 자그맣다. 가는 턱을 가진 그는 가부좌를 튼 자세로 앉아있다. 옷은 편안한 일상복에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다. 반쯤 열린 입이며 따뜻한 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노인네다. 뒤로는 붓 여러 자루가 담긴 붓통이 있어 그가 화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던 화가, 수화 김환기이다. 거침없이 그린 것이지만 어떤 특징을 과장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없다. 단순한 선과 먹 중심의 그려냈지만 사실적이다.

그 외의 작품도 꽤나 볼만한 것이 많았다. 큰 암벽산과 절벽 위에 위치한 산채 내 사람이 중국풍의 의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화

를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강변 가 마을이 저 멀리 보이고 가까이로는 큰 소나무 세 그루가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의 배경은 전형적인 한국의 전경이다. 그 중간에 놓인 강 위에는 나룻배와 사공이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진경이다. 다른 작품 수선화도 사실화이다. 화분 위 괴석 원편에 그려 놓은 수선화는 집 앞에 두고 가꾸던 화초 중 하나일 것이다.

부채 위에 그린 늙은 소나무와 바위를 소재로 한 ‘송노석불노(松老石不老)’, 짙은 먹으로 검은 새를 표현한 ‘흑조(黑鳥)’는 문인화풍의 작품이다. 높은 산, 깊은 계곡에 솟아오른 소나무를 그린 ‘운산구심(雲山俱深)’에는 ‘내 짐짓 석도화상의 화법을 시험해 봤으나 그 필의(筆意)를 터득치는 못했다’고 쓰여 있다. 이는 천 획을 응축해 한 획으로 모아 표현하려는 석도(石濤)화상의 화풍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린 작품일 것이다. 사실 묘사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필의, 즉 정신을 우선시하는 문인 화풍을 지향하려는 근원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다른 작품은 깨진 것을 이어 붙인 화병과 펼쳐진 책, 책갈피를 묶은 청색과 담황색상으로 그려내고 있어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책의 표지화로 그려낸 그림들도 다수 있다.

또 다른 귀한 작품이 남아 있다. 왼쪽 아래에서 붓으로 매화 줄기를 그리며 오른 쪽으로 나아간다. 매화나무의 웅이를 그리고 바로 가치를 치지 않고 그저 거침없이 줄기를 긋고 가치를 친다. 붓의 머무름이 없다. 중간의 멈칫거림으로 생기는 먹의 농도 변화 없이, 붓을 거침없이 쳐 올리며 줄기를 만들고 있다. 둥글게 그린 꽃잎이 네 개씩 모여 있고, 그 중앙에는 꽃의 암수술들이 별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그의 수필도 소개하고 있다. 얼마 전 성북동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성수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글은 쉽다” - 당신이 글을 쓸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춘다고 한다. 그런데 근원

선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해할만한 글을 썼다고 하신다. 내가 본 그의 글 역시 쉽고 재미있다. 깊고 전문적인 내용도 보다 쉽게 풀어내는 재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를 아마추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숨에 글을 읽어 내려가게 하는 것은 글 쓰는 사람에게 중요한 재능이다.

이번 기회에 근원을 알고자 해서 몇 권의 책을 찾았다. 읽다 보니 좋아서 부인에게 추천했더니 책을 옆에 꼭 끼고 정말 맛나게 읽고 있다. 재미있다. 추사에 대해 쓴 글도 좋다. 소개된 일화는 매우 흥미롭고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근원을 만나고 알아 갈 수 있게 만든 전시가 우리 마을잡지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회원에 의해 기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다.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우리 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자연을 기록한 몸, 몸을 기록한 그림

이승훈

김철우는 그의 작업 대부분을 작업실이 아닌 산과 들에서 자연의 풍경을 그린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산을 찾아 다니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일상에서도 자주 산행과 여행을 하며 살아왔다. 그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쉽게 살아가기 보다는 그의 몸으로 직접 자연을 만나고 느끼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다니고 늘 작업도구를 챙겨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며 작업 방법에 있어서도 디지털 매체나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채화 채색도구와 같이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자연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경험한 감각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작업, 즉 자연 혹은 작품이라는 것을 타자적 영역에 대상화 시켜 바라보는 위치에서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서의 작업을 넘어 작가와 자연이 일체가 되어 서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왔고 이를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승화시키는 자세에서 작업해 왔다.

예술은 그의 삶 자체이자 일상에서 그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 끊임 없이 감각적으로 교감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물질로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과정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에서 흔히 노출되는 현학적 논리나 거대한 작품 스케일 같은 과도한 제스처가 없다. 다만 대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온 세계에 대해 그가 교감했던 기록만이 그의 작업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작품을 보면 그림 속에서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린 것은 자연과 도시의 풍경들이기에 그러한 면도 있을 것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부재한 텅 비워진 듯한 그곳에서 오히려 사람의 향취가 느껴진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붓 터치와 드로잉에는 작가가 자연 가운데 찾고자 했던 때문지 않은 순수한 인간상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고, 그 향기가 배어 있어서인 것 같다. 이는 또한 그의 작업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그림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은 마치 동양의 산수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고 몰아일체의 감흥을 그리고자 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김철우의 작품은 사물 외부의 시각적 현상에 집중하였던 서양의 풍경화와는 달리 동양의 산수화와 닮아 있음을 알



창덕궁, watercolor on paper, 77x28cm, 2015



London, watercolor on paper, 52x33cm, 2017



Venezia, watercolor on paper, 52x33cm, 2017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관념적이고 상상적인 문인들의 산수화나 장소를 소재로 한 단순한 실경산수의 느낌이 아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처럼 사생하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석을 가하는 차별성이 있다. 작가만의 고유한 회화적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여러 점 같이 감상하다 보면 국내와 해외의 여러 명소를 그려내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고유한 필치와 풍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감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해석과 일관된 경향을 보게 되면 김철우의 자연에 대한 철학과 교감하는 감각방식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촌 구석 구석을 다니며 자연과 도시 속 장소들을 몸으로 느끼고 그려내는 가운데 대자연의 공간 속에 그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시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그가 본 세계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 작가가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객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자연을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살고 있고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연을 응시하는 한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그가 자연과 교감하였던 경험과 마주하여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개요

전시명 | 길 위에서 그리다

내 용 | 수채화, 아크릴, 회화작품 100여점

일 시 | 2017년 11월 14일(화) ~ 11월 23일(목)

장 소 | 예술의전당 제7전시실 (남부순환로 2406)

오프닝 | 2017년 11월 14일(화) 17시

-

이승훈은 사이미술연구소 디렉터로, 김철우 화백 개인전 〈길 위에서 그리다〉展을 기획하였다. 전서현, 김수진, 김영미 등 여러 작가들의 전시 서문 및 작품 비평글을 쓴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이기도 하다.

김철우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3갤러리, 현대아트갤러리, 갤러리예나르, 덕원갤러리, 인사아트센터, 갤러리메이준, 예술의전당 등에서 개인전을, 그리고 1983년부터 150여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제작그룹전, 현대수채화전, 서울현대미술제, 아시아수채화연맹전 등이 있고 서울산업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배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아시아수채화연맹전 회원이다. 성북동 주민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성북동 주민모임 '성북동천'의 대표를 맡아 활동해오고 있으며,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kimcheolwoo.com | 전자우편 kcww55@naver.com

※ 홈페이지에서 김철우 화백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정밀아 개인전 ‘그리기 쓰기 부르기’

임승현

예술/창작물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도달하지 못할 환상적인 판타지를 자아낸다. 이 초-일상적 꾸밈은 때론 바닥에 굳건히 서있기 힘든 현실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보이드를 제공한다. 한편 예술은 너무 친근하고 일상적이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동질감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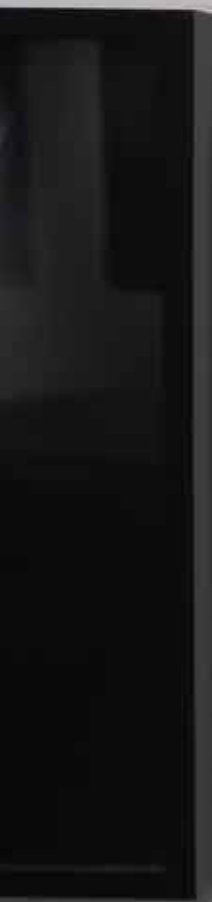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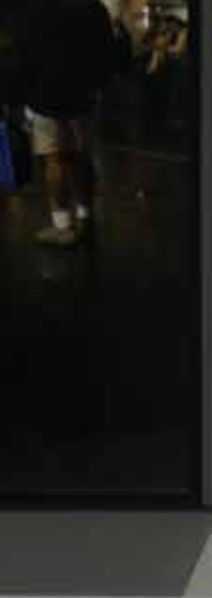
정밀아의 그림, 가사, 노래는 초현실적 카타르시스보다 현실의 거울 보기에 가깝다. 어떤 이에게는 휴식을,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나누는 새벽 라디오 디제이 역할 같다. 정밀아는 스스로를 창작자로 간주한다. 그

리고 쓰고 부르는 종합적 활동을 한다. 2집 앨범 발매 시기에 맞춰 열린 이번 개인전은 오랫동안 고이 싸두었던 창작물 보따리를 풀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림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장이다. 특히 그동안 ‘싱어’ 정밀아에 익숙한 이에게 이번 전시는 그의 음악을 한층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숨겨진 퍼즐을 맞추는 자리다. 그리고 쓰고 부르는 모든 창작행위는 어느 하나 튀는 태도 없이 동일선에서 각자 역할을 하며 좋은 어코드를 맞춘다.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쓴 그의 노래가사, 그리고 이를 꾸밈없이 담담하게 읊는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보편적 경험의 재현을 이끌어낸다. 근접한 과거에 겪은 사사로운 일을 연상하게 하고, 특별하지 않은 어제의 사건을 노랫말과 곡조로 ‘보편 타당한 특별함’으로 포장하도록 돕는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개인의 ‘그렇고 그런 시선’은 예술이 가진 아름다운 마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변모한다. 이는 듣는 이에게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르는 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모든 인간은 외롭다는 전제를 제쳐 두고라도 외롭다”라 말할 만큼 스스로 외로운 이의 노랫말은 공통적인 감각을 느끼는 불특정 리스너에게 공동체적 안도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감 형성은 창작자가 숨김없고 솔직하기 때문에 가능할테다. 운율을 맞춘 시적인 가사, 그 가사와 최대한 밀착한 꾸밈없는 목소리를 듣고 읽으면 굳었던 긴장이 이완된다.

한편 정밀아의 회화는 오래되어 너털너털한 일기장 같다. 그리고 쉬기를 반복한 그림에는 그의 하루와 흘러온 시간이 담겨있다. 음악이 앨범 범을 만드는 기간 동안의 정밀아를 품고 있다면, 그림은 더 오래전 어느 날의 모습부터 현재에 당도한 설렘까지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품고 있다. 특히 전시장에서 완성하게 될 <데일리드로잉(가제)>은 시간으로서





의 그림을 보여준다. 매일 메모를 남기듯 떠오르는 장면을 꼬물꼬물 그려내는 이 작업은 정밀아의 내밀한 부분을 끄집어낸다. 그의 회화는 물리적으로 플랫폼이지만 표피적이지 않다. 하루하루 드로잉하듯 그린 그림은 실상 숙성된 장면의 완성이다. 음악이 정제된 창작물이라면, 그림은 혼성의 결과물이다.

그의 음악 작업은 세션과의 입맞춤을 거친 스킨십의 창작물이다. 반면 회화는 내면에 존재한 외로움과 고독의 독백이다. 그림은 관객을 상징하고 그리지 않는다. 그대를 살피기 이전에 나를 들여다본다. 특히 음악을 도구로 표현하기 이전에 완성한 회화는 과거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에 대한 응어리진 성찰 혹은 외침에 가깝다. 음악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나’의 투사다. 이야기는 외면의 사건과 현상에서 비롯된다. “저녁바람 마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찬 공기를 뚫고 스며든 봄빛” 속에서 “공평하게 쏟아지는” 보편성을 찾아낸다. 결과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을 예민한 관찰로 끄집어낸 이야기이기에 대중적 공감 형성이 쉽다. 그러나 그림은 훨씬 은밀하다. 대상과 공유하기 위해 그리지 않는다. 마치 나의 은밀한 부분을 기록한 비밀 일기장과 같다. 사실 그의 그림을 두고 공통적인 시각적 특징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각 작품은 그의 감정의 리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적 유사함 보다는 정밀아가 지닌 감정적 맥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고, 부르는 창작 활동 외에 찍는 행위는 정밀아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계추 역할을 한다. 파편이 모여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앞선 전체 창작 행위의 원자 역할을 사진이 담당한다. 외부에서 발견한 장면을 찰나에 담은 행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기억과 감정의 조각을 붙잡는 일을 사진이 한다. 사진은 안과 밖, 어제와 오늘, 얕음과 깊음, 나와 우리 사이의 중간자다.

음악 작업을 하면서 공연이나 앨범에 사진작업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진이 편리한 가벼움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로서 듣는 이가 보는 이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연속성의 이유도 있겠다. 이번 전시가 낯설지만은 않은 것은 그간 사진으로 접했던 순간순간의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밀아는 흩어졌던 창작의 조각을 한곳에 펼쳐 놓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튀는 법이 없고, 그림자에 숨어 모습을 가리는 법이 없다. 정밀아의 목소리가 어쿠스틱 기타와 초근접한 거리를 유지하듯 각각의 창작물은 서로간의 영역을 물 흐르듯 닮아가며 조화를 이뤄간다. 오랜 만에 ‘공연장’이 아닌 ‘전시장’에서 정밀아가 건내는 목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는 유연한 감상을 추천한다. 그리고 쓰고 부른 하나하나의 별을 다시 보고 읽고 들을 때 각자의 은하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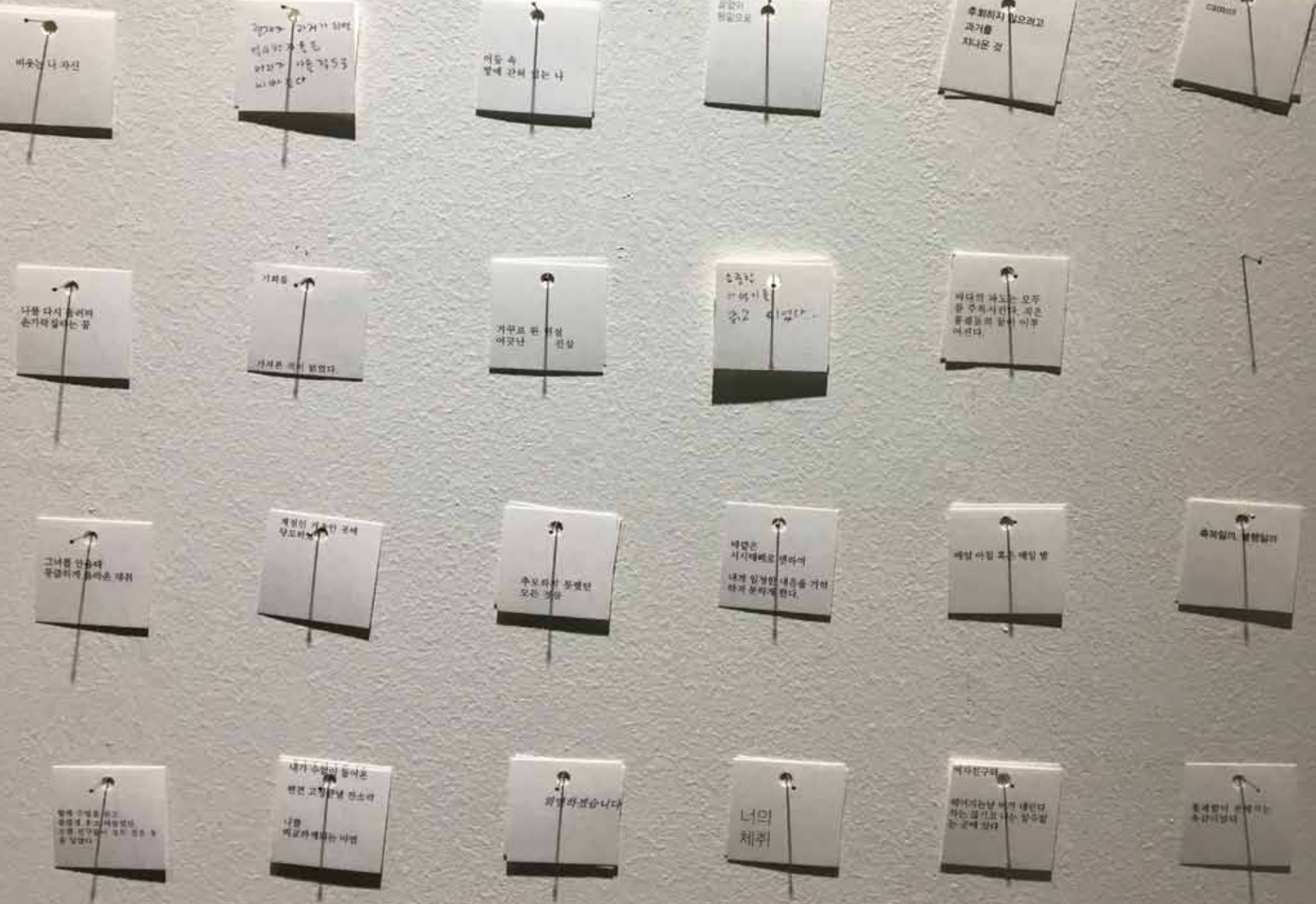
임승현은 문화를 시각적으로 익히고 글로 나누기를 즐기는 글쓰는 사람이다. 서울과 런던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고미술과 현대미술, 한국과 유럽 미술사를 공부하며 동서고금 시각미술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미술전문매체 <월간미술>에서 3년간 기자로 활동했고, <아트조선>에서 기자이자 전시기획자로 재직했다.

정밀아는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창작자다. 소소한 일상 속 감정을 노래에 담아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한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오랜시간 미술보다는 음악에 집중해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10여년만에 ‘미술’ 창작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한 전시, “그리기 쓰기 부르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성북동 문화공간 17717에서 열었다. 그동안 감취은 또 다른 모습의 정밀아를 공개하며 ‘평범한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일상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 나간다.

문화공간 17717 한장 스케치

손과 얼굴 기획전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2017. 12. 5 ~ 12. 18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성북동 한옥 찻집 마로다연

법진스님

〈마로다연〉의 문을 연지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보지만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기억을 짜내어 이야기하자면, 그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들의 숨결이 산소처럼 청량하게 남아있다.

마로다연의 어원은, 내가 성북동을 오가며 살고 있는 광양의 백제시대 지명 ‘마로현(馬老縣)’에서 비롯되었다. 도탑게 정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차향과 함께 잠치하듯 살아보자는 뜻으로 ‘마로다연(薦勵茶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절간은 아니지만 출가수행자가 운영하고, 종교

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불교의 ‘자리아타(自利利他)’¹⁾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도시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급하다. 그 속에서 마로다연은 작은 쉼터이며 ‘숨’이고 싶다. 매주 여는 화요차회(와 선다례명상수업은 그 ‘숨’을 만드는 시간이다.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사람들이 숨통을 열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마로다연을 만들어가고 싶다.

큰병을 앓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로 나는 먹거리가 약이라고 생각한다.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도 그 이후로 병원 문턱을 밟아 본 적이 없다. 오로지 대체의학과 자가 치유,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정신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시켜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지금 내가 주관, 참여하고 있는 장터 ‘마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도 그와 맥락이 닿아 있다. 몸을 살리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내 소임으로 여기고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성북동에 처음 이사 올 때 찻자리도 중요했지만 농촌과 도시 사람들 사이에 좋은 먹거리를 이어주는 것을 내 역할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았다. 어느덧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로장’ 역시 그 일환으로 시작한 일이다.

더러는 가격이 높아서 구입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사람들도 있다. 마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라 관행농산물보다 더 많은 공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가격이 더 높다. 타 먹거리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1)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



아직은 성북동 사람들에게 많아 알려져 있지 않아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 도회지 사람들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모른 채 성북동 좁은 골목 뒤편길에 묻혀 지내기는 하지만 ‘마로다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북동 사람들에게 차향과 함께 서로 도우며 정을 나누는 정겨운 곳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본다.

-
법진스님은 성북동 골목 막다른길 깊숙이 위치한 한옥에 자리 잡은 찻집 ‘마로다연’의 운영자이다. 차(茶)를 만들며 대중에게 제대로 된 차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 제품과 좋은 먹거리를 찾아 도시인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청년 셀러들과 의기투합하여 찻집 마로다연 앞집 마당에서 ‘마로장’이라는 장터를 열고 있다.

마로다연 | 성북로8길 12-23 (성북동)

☎ 010-4554-9077 | facebook.com/marodayeon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주민 인터뷰

신선한 과일이 가득한 성북동 과일카페 58.4

김현주, 오예주

고즈넉한 성북동 길을 걷다보면 골목 어귀에 예쁘게 진열된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시선을 끈다. 과일 가게인가 싶어 들여다보면 안쪽으로 독특한 한옥카페가 보인다. 예술을 공부했던 박영준, 윤진경 부부의 정겨우면서 운치 있는 건강한 이색카페를 만나보았다.

Q 카페 58.4는 어떤 가게인가요?

박영준(이하 ‘박’) 과일을 테마로 한 카페예요.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한 커피는 물론이고 갈아 만든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은 건강한 착즙 주

스 전문 카페입니다. 신뢰가 가는 신선한 과일을 직접 내놓고 팔기도 하고, 맛있는 주스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짜주는 100% 착즙주스가 인기 메뉴이지요.

윤진경(이하 ‘윤’) 어머니가 과일집을 하셨는데 과일을 가게에서 직접 깎아 나눠드시곤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카페 58.4 역시 주스나 음료뿐만 아니라 직접 과일을 드실 수도 있게 판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성북동에 자리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윤 : 2015년 봄에 이곳으로 이사해 가게를 연 지는 올해 3년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돈암동에 계속 살았는데, 둘 다 무대미술 분야에서 20년간 같이 일하다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성북동의 이 공간을 발견했죠. 원래 쌀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한옥과 어우러진 재밌는 공간이라 남편이 곧바로 ‘우리 여기서 과일이나 팔까?’ 해서 과일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죠. 한옥 안쪽에서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 : 아내가 과일집 딸이에요. 장모님이 월곡동에서 과일 가게를 4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아내는 공간디자인을 하던 사람인데 언젠가는 카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 공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제안을 했죠. 과일 가게 하시는 장모님이 있으니까 매일 새벽장도 같이 보고 혼나기도 하며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과일이 생물이니 힘들다고 말리셨지만 이내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게 과일이 마트보다 비싸지 않은 이유는 사실 장모님 덕이 크죠.



Q 성북동에서의 지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박 :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안에 있지만 서울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랄까. 아내는 고향이 성북구고 저는 대성리입니다. 서울사람들한테 성북동은 마치 그런 유원지 같아요. 주말에 성북동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기서 살며 일하며 주위 이웃들을 비롯해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 사는 모습을 관찰하게 돼요. 저희가 여기 온 뒤로 동네에 아기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오가는 분들의 얼굴을 보며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새 친구가 왔나’ 하며 관심을 갖게 되고, 동네분들도 좋아서 진짜 이웃이 생긴 느낌이에요. 카페가 골목 입구에 있다 보니 어떤 분은 여기가 ‘동네 검문소’ 같다고도 하세요.(웃음)

윤 : 이웃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분들을 따라 성북동 마을계획단 활동도 하게 됐고, 매달 성북동의 몇몇 가게들과 함께 하는 마켓인 프롬에잇에도 참여하게 됐지요. 성북동에서 하는 큰 축제인 성북세계음식축제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했었고요.

Q 성북동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나 경험은 있으실까요?

윤 :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동료나 후배들도 많이 만났어요. 북정마을에 연극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 단골손님인데 알고 보니 서로의 지인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반면 아쉬움도 많아요. 정들었는데 떠나는 이웃에 대한 아쉬움이요. 성북동은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헤어지는 일,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박 : 동네가 좋다보니 동네일에도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성북동 나무사건 때에도 참여하기도하고요. 성북동 사람들은 참 열성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달까요. 성북동이 저희를 이곳으로 끌어당긴 것 같아요.(웃음)

Q 성북동에 대한 생각이나 바람이 있나요?

박 : 저희 가게 2층으로 올라가면 한옥 기와지붕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성북동 풍경이 펼쳐져요.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이 삼청동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북동이 3년 전보다 변화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성북동이 가진 감성과 분위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 : 남편은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저도 공간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이 공간도 직접 다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욕심은 많았지만 성북동의 느낌에 맞게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원형을 최대한 살려 지켜내는 작업이 힘들긴 했지만 원래 있던 쌀집의 감성을 공간에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어요. 공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게 이름도 이곳 주소인 58.4로 했죠. 성북동에 아직 그런 사람들과 분위기가 있는 좋은 시기에 들어와서 행복해요. 그렇게 성북동에서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

-

과일카페 58.4 | 성북로16길 4-13 (성북동) | ☎ 02-743-8340

※ 격주 월요일 휴무 (첫째·셋째 주)

김현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성북동 한 모퉁이에 터 잡고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성북동이 성북동다움을 간직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창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성북동에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다. 지금은 성북동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귤
12개 5,000

사과
2개 5,000

조
18개



토마토
1kg 3,000

과일 대모험, 일상의 풍요를 만들다

박범기

‘과일 대모험’의 시작

과일이 먹고 싶었다. 하지만 먹기 힘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비싸서. 마트에서 조금씩 사다 먹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렇다고 박스 채로 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7.5kg짜리 배를 한 박스 산 적이 있는데, 한참 먹다가 절반 정도를 썩혀 버린 적이 있었다. 아까웠다. 그 다음부터는 과일을 박스 채로 사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과일을 먹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먹지 못했다. 별로 아쉬운 것도 없었다. 과일을 못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다가 올해 초, 두 달 가량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유럽은 과일이 매우 싸다. 그래서 거의 매일 과일을 먹고 다녔다. 그러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 과일이 먹고 싶어졌다.

과일이 비싸서 과일을 못 먹는 것이 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았다. 혼자서, 혹은 둘이 사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몇 명을 모아서 과일을 공동구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북동에 살고 있는 1-2인 가구 다섯이 먼저 모임을 시작했다. 가구 당 월 1~2만원을 걷고, 그 돈으로 과일을 사서 나누기로 했다. ‘과일 대모험’이라는 모임 이름도 정했다.

몇 가구가 모여 함께 과일을 사서 나눠 먹는다, 사실 이 발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키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을’이나 ‘이웃’ 같은 단어가 개념으로만 남아 있는 2017년 한국 사회에서 함께 과일을 사서 나눠 먹을 만한 이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 같이 하우스 세어를 하는 이가 성북동에 아는 사람이 제법 있었고, 때문에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

일상의 풍요, 그 멀고도 험한 길

여러 가구가 모여서 과일을 함께 나눠 먹는다. 이 별 시답잖은 일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¹⁾ 이게 뭐라고 인터뷰까지 하게 됐을까 싶었다. 그러다가 다들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는 새삼스러운 현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실 그렇다. 내 주위만 둘러봐도 밥 한 끼 챙겨 먹는 일이 쉽지 않은 이들이 꽤나 많다. 그것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밥을 먹기보다는 끼니를 때우는 것에 그친다. 특히 저임금과 과잉 노동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밥이 아닌 과일이야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유기농 재배를 통한 질 좋은 과일을 먹는 일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과일대모험’을 진행하면서, 나는 되도록 무농약 혹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과일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대개는 생산자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과일을 구매했다. 그것이 나의 일상의 풍요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상의 풍요를 누리는 일. 누군가는 사치라고 여길

¹⁾1인가구지만 더 건강한 밥상 원하는 분, 보세요~!», 고한술, 《한겨레 신문》, 2017.03.19.
<http://bit.ly/2iufewX>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물론, 일상의 풍요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과일대모험’을 통해 월 1~2만원 수준으로 질 좋은 과일을 먹게 되었듯이, 각자가 자신의 일상의 풍요를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나는 각자의 삶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유의미하다고 믿는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작은 모임

‘과일 대모험’은 매달 1회에서 2회 진행되는데, 모임 장소는 각자의 집이다. 정기적으로 각자의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모임을 진행하는 경험.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린 일이다. 공동체라는 것이 희소해져버렸기 때문이다. 모임을 하면 단순히 과일을 같이 사서 나누어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 사이에 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작은 모임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작은 모임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

-
박범기는 문화연구자이다. 성북동 공동체주택 ‘따로 또 같이’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성북동과 인연을 맺었다.



지역공동체 특집 × 주민 기고

11월 13일 : 故 배정학 활동가를 추모하며

글 황선영 · 사진 홍수만

그날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린 말은 아마도 “왜?”였을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묻고, 서로에게도 물었다. 말없이 있다가 젖은 눈길로 마주칠 때마다 물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누가 잘못된 일이나고 따져 물을 사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차라리 나

았을지 모르겠다. 속 시원한 답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의 끝은 결국, 그러면 내 잘못인가, 곁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한 내 탓인가, 하며 스스로를 겨누었다.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뜯은 이들이 많았으리라.

11월 13일 아침 11시 경, 카톡방으로 배정학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대표님(이하 ‘배 대표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처음 날아들었을 때만 해도, 가벼운 걱정만 했지 큰일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병원에 갔으니 좀 아파도 치료를 받고 금세 나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문병을 가서 ‘그러게 몸을 좀 챙기시라니까’는 핀잔 섞인 위로를 나누며 웃게 될 것이라고.

헌데 그 외의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 누군가 잘못 알려 준 거야.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때 마침 병원에서 가까운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있었던 나는 정오를 조금 넘겨 응급실에 도착했고, 그래서 배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응급실 앞에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온 십여 명의 지역 활동가와 대표님의 친동생이 같이 계셨다. 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거기서 마주하였다. 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얀 시트를 젖혀 그 아래 누운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용기가 차마 없었다. 그러나 너무나 믿을 수가 없기에, 직접 보고 나면 믿어질까 싶어 가까스로 걸음을 옮겼다.

하얀 시트로 덮인 침대는 그 아래 누군가 있다고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평평해 보였다.

“어떻게 저리 작아 보이는지…”

내 옆에 있던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의사가 유가족에게 사인을 설명하는 동안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믿을 수 없

던 일이 눈으로 확인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응급실 앞을 떠나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망 확인과 장례 수속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전에 계시던 고인의 가족들을 모시면서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고, 끝이어 들어올 조문객들을 위해 장례식장 입구에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를 부탁했다.

오후 3시쯤 분향소로 자리를 옮겼다. 입구에 들어서서야 영정사진 생각이 났다. “영정 사진이…”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한 듯했다.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영정 사진,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나다니. 장례식장 내에 사진 인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있으면 바로 넘겨달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다들 카톡이며 페이스북을 열어 급히 사진을 찾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분을 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이렇듯 갑작스럽고 허망한 이별을.

많은 분들이 분향소를 찾아주셨다. 처음 그 분을 만났을 때 그는 사회적 기업 ‘동네목수’의 대표셨고, 후에 알게 된 것은 나와 같은 노동당원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알던 그 분의 활동은 마을과 노동 영역에 중심이 있었는데, 그 분이 떠난 후에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 오셨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노동, 장애, 인권, 빈곤 퇴치, 마을공동체 활동… 온 몸으로 이웃을 끌어안으며 살아오신 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장님으로 평생을 살아 온 고인의 행적은 분향소가 비좁을 정도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대신 말해 주고 있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배정학 대표님은 언제나 선한 미소를 띠고 있던 분이다. 언뜻 보기에 말수가 적은 듯하지만 재치 있는 말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 주셨던, 그리고 그 자그만 체구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끌고 나가나 싶게 언제나 바지런히 무언가를 하고 있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신 분을 더욱 아프게 기억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최근 몇 년간 지역 활동가로서 고인이 겪던 어려움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문제든 공모사업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동 자체의 한계든, 배정학 대표님에게는 그러한 힘겨움이 누적되는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고 몇 배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셨다는 점이, 남은 우리들에게 더욱 아픈 자책으로 남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왜?’라는 질문 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남게 되었을까.

동네 친구이자 동료 활동가를 잃은 슬픔을 두고서 그 어떤 다짐이나 결론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곁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 나는 올해 3월 성북의 동네 친구 6명이 함께 다녀온 대만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보았다.

귀국하기 전날 우리 부부와 배 대표님은 다른 일행과 나누어 타이페이 국립박물관과 지우펀 구경을 하고 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호텔 근처의 유명한 휘귀집에 가서 여행 마지막 저녁을 즐겼다. 그때 사진들을 찾아보는 동안 대만에서의 대표님 모습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국립박물관에서 도자기를 들여다보던 진지한 얼굴이며, 지우펀의 야경을 함께 보고 즐겨하시던 그 모습들. 우리에게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이 남아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야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 사람의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감히 어떻게 그 분이 떠난 빈자리를 채운다는 말을 할까. 그의 삶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다만 그 분이 온 몸으로 기둥이 되었던 자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허망한 일만은 막기 위해서 그 하던 일을 되짚어 보고 힘을 보태야겠다는, 그래야 떠난 분에게 덜 죄스럽겠다는 조심스러운 결심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허망함을 두 번 겪지 않기 위해 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왜 우리는 그 분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동료를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크게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작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챙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고인을 우리가 평생 추모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다. ㉠

“편히 쉬십시오. 대표님은 가셨지만 대표님의 뜻은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

황선영(주호)은 문화기획을 하고 글도 쓰고 공동체 활동도 한다. 지금은 삼십육짬육도 씨의료생활협동조합의 기획자,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운영위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지원활동가를 겸하고 있다. 성북동에서 곰서방과 귀둥이와 달고나와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일진 잘 모르겠다.

-

지난 11월 13일, 성북동 이웃동네인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2009년부터 지역활동에 참여해오신 故 배정학 활동가가 급작스레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을 추모하고자 평소 고인과 함께 활동해왔던 분께 원고를 의뢰하여 신게 되었습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와 성북동천은 이웃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북의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오셨던 고인을 함께 기리고 추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집자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장님 故 배정학 활동가



1966년 6월 4일 충북 영동 출생

2002년~2006년 민주노동당 구리시위원회 사무국장
 2006년~2009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2007년~2010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2007년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원
 2010년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회원
 2010년~2014년 홀리스행동 운영위원
 2011년~2014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2011년~2015년 진보신당/노동당 성북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12년~2016년 성북구 인권위원
 2013년~2017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2016년~2017년 성북마을기금협의회 의장
 2016년~2017년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부대표
 2015년~2016년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공동대표
 2015년~2017년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대표
 2017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2017년 협치성북시민협의회 복지분과 위원장

편집 후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김기민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계획은 완벽했고, 그대로 추진하기만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어디 그러한가요. 내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닥치고 당신에게도 닥치며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순조로움 따위는 채 오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우린 모두 시시각각 새로운 일들이 터지고 계획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계획, 순조로운 추진, 그리고 평화로운 완성이 들어설 자리를 찾이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돌이켜 보면 성북동천이 해왔던 모든 사업과 활동들이 그러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땐 그 계획대로 되리란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성북동천의 주요 사업이었던 마을사진전·마을여행 프로그램·마을잡지 간행·마을학교도, 성북동천 혹은 소속 회원에게 요청되었던 각종 회의참석과 자문 활동, 소소한 용역 의뢰, 다양한 단위에서 성북동천에 요청하는 협력과 연대, 그리고 소속 회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각자의 삶과 자기생계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처음 구상대로 완성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순탄하고 쉬운 게 얼마나 있을까마는, 마을살이 역시 그렇습니다.

올해 마을잡지에서는 기존의 거주자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민 인터뷰에서 좀 더 나아가 성북동에 사는 주민이면서 자신의 직업과 성북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의 연계를 시도해 좀 더 풍성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했고, 그 첫 시도로 어느 연극 연출가분을 인터뷰하기로 했지만 인터뷰이 사전조사, 질문지 작성 및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못해 결국 새로운 인터뷰 기획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단체로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현안들을 지역에 공론의 장을 세우는 작업으로서 동네 주민들의 보행환경, 도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환경권, 지역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 및 참여 주체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잡지에 실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이지 못해 초반 작업까지만 진행하고, 계획한 나머지 과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은 왜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해낼 순 없었던 건지(좀 더 노력했다면 할 수 있었을지), 이후에 다시 시도할 것인지, 시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이어질 평가의 과정으로 넘겨졌지만, 편집후기를 쓰며 남는 아쉬움까지 이후의 과정으로 맡김히 넘기지 못하는 건 제 욕심 때문이겠지요.

성북동천 회원들은 올 한 해 마을잡지 10호 이후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결성 때문일까요. 지난 5년을 매해 꼬박 간행해온 마을잡지가 앞으로 5년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성북동천이 잡지 간행 외에 어떤 활동을 상상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아직 풀지 못한 실마리가 한가득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이어서 내년 총회 전까지 성북동천이,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고민과 탐색의 여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여정의 종착지에 무엇이 있을

지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성북동천이 해왔던 활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여전할 것이고, 이후의 어떤 상상도 그 위에서 이루어지겠지요. 무엇을 하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니까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일은 뭐든 같이 해왔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㉞

-
김기민은 성북동천의 만년 총무이다. 2011년 조용하고 한적하며 평화로운 동네를 찾아 카페 티티카카를 열면서 성북동과 인연을 맺었고, 경영 수완이라고는 1도 없어 지난 2015년 문을 닫았으면서도 여전히 성북동에서 동네 주민이자 누군가의 이웃으로, 한편으로는 지역의 (자원)활동가로 정착화하여 살고 있다. 심지어 그 카페(였던) 공간을 이제 ‘동네공간’이라는 이름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네공간도 살고 있는 집도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네공간 | 선잠로 12-6, 1층 건축그룹[tam]
adultscentre@gmail.com | facebook.com/coospace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 마을여행, 문화·예술 행사 또는 프로그램 기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학습모임 구성, 지역 의제 발굴 및 동네 현안을 다루는 공론장 마련,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과의 교류 및 관계형성, 민간 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 등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 희망제작소 주관 성북동마을학교 참여자 중심으로 모임 조직 (2013. 2~5월)
- 단체 설립 (2013. 5월)
-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3~2014) : 마을잡지 창간호 간행, 마을 사진전 개최, 마을학교 운영, 마을여행 진행
-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주민공동체 희망사업 (2014) : 마을잡지 4호 특집호 간행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2014~현재) : 마을잡지 2~3호, 5~10호 간행
- 성북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민관협력회의의 참여자 (2016~현재)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 (2016. 9월~현재)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사무처 운영담당 겸 운영위원회 간사 (2017. 6월~현재)
-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단 컨소시엄 참여 (2017. 7월~현재)

성북동천 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거주지/생년월일	성별	그 외
관심 분야	마술잡지	마술여행	문화·예술	예술·학습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싶어요		준비된 행사/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지역 의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 의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거나 참여해보고 싶어요		
	기 타			
회원 구분	정 회원	매월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고 단체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월 5,000원의 회비 납부와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필수입니다.		
	후원회원	성북동천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초대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금전 후원과 제능 참여로 단체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사항!	상기 본인은 성북동천의 정회원 / 후원회원 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며, 회원으로서 단체 정관과 규약, 규정 등 세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북동천 활동 및 회원 관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내사항	성북동천은 법인/비영리 기금관리단체가 아니며, 성북동 기원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인들이 설립한 비영리(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비 출금은 CAS 방식이 아닌 회원 개인이 본인 계좌에서 회비 납부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는 신용카드를 하거나 계좌 이체, 정기 모임 시 현상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주시아 합니다.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 - 901 - 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20 년 월 일

가입신청자 (남성/여성)

성북동천 귀하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10호 <비매품>

2017년 12월 18일 발행

편집 |

상임 편집위원 김기민 박진하 장영철 최성수

비상임 편집위원 김철우 김현주 오예주

교정·교열 | 최나현

디자인·사진 | 17717(김선문, 장수연)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후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070. 8871. 5998